# 간염의 전염 경로와 증상

## 1. 전염 경로

### 가. A형 간염 바이러스

원칙적으로 음식물을 통한 경구 감염이다.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배설물, 특히 대변 속에는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배설된 바이러스는 음식물을 오염시켜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게 하는 것이다.

이 간염은 늦은 가을이나 봄에 잘 발생하며 집단 거주생활을 하는 곳에서 대량 발생하는 현상을 보인다.

A형 간염 바이러스의 주된 감염 경로는 경구적이지만 드물게는 혈액이나 분뇨가 아닌 다른 배설물을 통하여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다. 즉 급성 A형 간염을 앓고 있는 환자의 혈액을 수혈받게 되면 발병할 수 있고 환자와 가까이 접촉함으로서 음식물을 통하지 않고도 전염이 가능하다.

### 나. B형 간염 바이러스

과거의 주된 감염 경로는 혈액을 통한 감염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사기구에 대한 완벽한 소독과 일회용 주사용구의 보급, 공혈자(供血者)에 대한 B형 간염의 철저한 검사로 인하여 이러한 경로를 통한 감염은 줄어들었다.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집단 생활자의 보균율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높고 환자와 접촉이 많은 의료진, 그리고 동성연애자와 기타 면역학적으로 저항이 감소된 사람에서의 보균율이 상당히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처음 집단 생활을 하는 학동기에서의 감염율이 높은 것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B형 간염 전염경로 중 가장 중

요한 것은 보균자인 어머니를 통한 태아의 감염이다. 이러한 모자감염의 중요성은,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은 일생동안 B형 간염의 감염원이 되고, 또 그들 중 많은 수가 만성간염, 간경변증 및 간암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 다. 비A비B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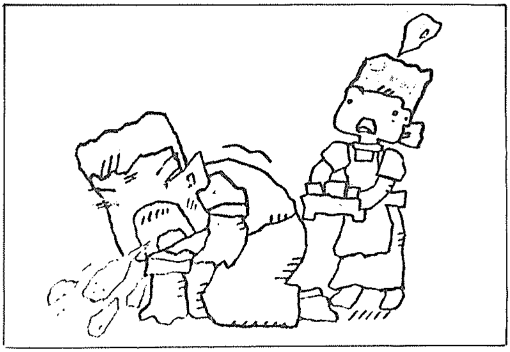
B형과 비슷한 경과를 지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비A비B형 간염에 관한 검사는 이제 시작 단계이고, 이 범주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몇종류가 있는지 조차 확실하지 않아 수혈 전에 완벽한 검사가 어려워, 사실상 이에 대한 예방 검사가 불가능 하다. 따라서 요즈음 발생되고 있는 수혈 후의 감염은 거의가 여기에 속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 2. 증상

### 가. 급성간염

급성간염이 아닌가 의심을 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는 황달이 나타났을 때이며 그 전에는 일반적인 소화기 증상이나 감염증상과 비슷해 구별이 쉽지 않다.

간염의 임상증상은 잠복기, 전구증상기, 황달기, 회복기의 네 시기로 나뉘어 나타난다.



잠복기는 균이 침입해 증식하는 시기이다. 이때 환자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않는다. 그 기간은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A형간염은 15~45일 정도이며, B형간염은 2~6개월 때로는 몇년씩의 긴 기간을 지내는 경우도 있다.

잠복기가 지난 후에 오는 전구증상기(前驅症狀期)는 증상이 시작되어 황달이 시작될 때 까지이다. 증상은 아주 다양해서 식욕부진, 오심, 구토, 구역, 소화불량, 상복부동통, 설사 등을 호소한다.

그외에 발열, 두통, 목의 통증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전구증상은 보통 3~7일간 계속되며, 황달이 시작되면 서서히 소실되거나 때때로 장기간 지속되기도 한다.

전구증상 다음으로 나타나는 황달기에는 대개 소변색깔이 갈색 내지 흑갈색으로 변하는 것이 시작이다. 이때 눈의 공막이 황색으로 착색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급성간염의 증상은 식욕부진, 오심, 구토, 소화불량 등 매우 다양하다.**

증상이 진행되면 피부까지 노랗게 된다.

이 시기에는 전구증상기의 증상은 거의 소실되고, 환자는 편안함을 느끼고 식욕도 회복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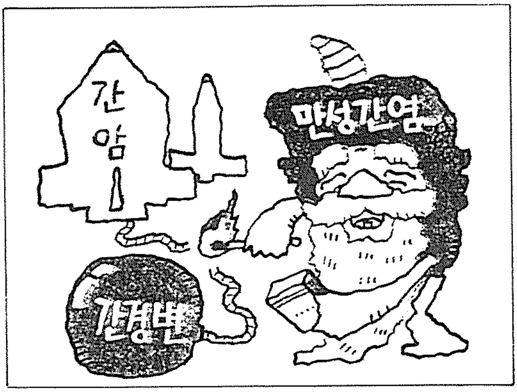
이상의 시기를 모두 거치면 회복기로 이어진다. 모든 증상이 없어지지만 때때로 장기간 무력감과 전신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급성간염의 전형적인 경과이나 예외적으로 급성전격성간염, 아급성간염, 담즙울체성간염, 무황달성간염 등이 있다.

급성전격성간염은, 급성간염이 시작되면서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어 간성혼수에 의한 높은 사망율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이 종류의 간염은 간세포가 빠르게, 동시에 파괴되므로 처음부터 황달이 심하게 나타난다. 또한 간기능이 빠른 속도로 나빠져 조기에 간성혼수가 나타나 발병 일주일을 전후하여 사망하게 된다.

아급성간염은 간세포의 파괴가 일정기간을 두고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수개월 내에 간기능이 저하되고, 결국에는 간경변증으로 이행하여 사망하는 것이다.

담즙울체성간염은 황달이 심하게 나타나는 간염으로 간세포의 염증보다는 담세관의 염증이 심하게 일어나, 담도폐쇄와 감별이 어려운 형태의 간염이다.




나. 만성간염

만성간염은 자각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다소 피곤하거나 몸이 무거운 정도이며, 식욕이나 소화기능은 보통 정상이다. 간혹 간부위의 불편함을 느끼거나 복부 팽만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만성간염의 경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아주 심하다. 즉, 1~2년 내에 간기능이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부터 10년이상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즉, 일부의 만성간염에서는 황달, 피로감,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심해지면서 간기능이 악화되고 2~3년 사이에 간경변으로 이행되지만, 반대로 수년 동안 점차 증상이 없어지고 간기능이 정상화되어 완치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의 만성간염에서는 간기능이 악화되어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이행되기도 한다.**